

韓国語の用言の活用

用言

活用する言葉を用言といい、韓国語には指定詞(이다, 아니다)、存在詞(있다, 없다, 계시다、),

動詞、形容詞の四種の用言がある。

用言の原型(辞書型)から一다を取ったものを語幹という。活用形は語幹に活用語尾を付けて作る。

活用形を作る時、次のような語幹の区分が必要になる事がある。

母音語幹：母音で終わる語幹 가다, 나오다, 다니다, 크다等

ㄷ語幹：ㄷで終わる語幹 가늘다, 날다, 달다, 만들다等

子音語幹：子音で終わる語幹 깎다, 남다, 달다, 밝다等

用言の変則活用

(1) **으変則**：語幹が「으」で終わる用言の大部分がこれに属する

：「아／어」で始まる語尾や補助語幹が付くと「으」が落ち、残った最後の母音が陽母音なら「아」が、陰母音なら「어」が付く。単音節語幹では必ず「어」が付く。「아／어」が接続する時以外は規則的に活用する。

略待上称 아프+아요→아파요, 예쁘+어요→예뻐요

過去形 바쁘+었다→바빴다, 슬프+었다→슬펄다

連用形 모으+아→모아, 쓰+어→써

《注》その他の主な으変則用言：기쁘다, 나쁘다, 고프다크다, 따르다, 뜨다, 끄다, 담그다, 치르다, 잠그다, 트다

主な으正則用言

(2) **르変則**：語幹が「르」で終わる用言の大部分がこれに属する。

：「아／어」で始まる語尾や補助語幹が付くと、「으」が落ち、残った最後の母音が陽母音なら「라」に、陰母音なら「려」に変わるとともに、その直前の音節にパッチム「ㄹ」が挿入される。「아／어」が接続するとき以外は規則的に活用する。

《注》ただし「따르다・치르다」のように(1)の「으変則」に属するもの「푸르다. 이르다(至る)」のように「려変則」に属するものがある。

略待上称 모르+아요→몰라요, 흐르+어요→흘러요

過去形 빠르+었다→빨랐다, 기르+었다→길렀다

連用形 오르+아→올라, 누르+어→눌러

《注》その他の主な変則用言：가르다, 고르다, 두르다, 마르다, 바르다, 부르다, 서두르다, 이르다(言う, 早い), 자르다, 게으르다

主な正則用言

(3) **리変則**：語幹が「르」で終わる用言のうち、이르다(至る)、푸르다(青い)、노르다(黄色い)、누르다(黄色い)の四語は「아／어」で始まる語尾や補助語幹が付くと「아／어」が「려」に変化する。いずれも「려」になる点に注意。

노르(다)+아서→눌러서

이르(다)+었다→일렀다

《注》누르다(押さえる)と이르다(早い、告げる)は、原形は리変則と同形だがこの二語は르変則に属するので要注意。

(4) **ㅁ変則**：語幹が「ㅁ」で終わる動詞の一部と形容詞の大部分がこれに属する。

a : 「으」で始まる語尾や補助語幹が付くと「ㅂ+으」が「우」に変わる。

- (1) 形容詞の現在連体形 덩+은→더운, 가깝+은→가까운, 밍+은→미운
- (2) 動詞の過去連体形 굶+은→구운, 돕+은→도운
- (3) 仮定形 맵+으면→매우면, 눅+으면→누우면, 반갑으면→반가우면
- (4) 敬語形 우습+으십니까? →우스우십니까?, 뜨겁+으세요→뜨거우세요

b : 「아/어」で始まる語尾や補助語幹が付くと、「ㅂ」が「우」に変わり、さらに「아/어」と融合して「워」となる。どちらも「워」になる点に注意。

ただし「돕다・굽다」は「고와・도와」になる。

- (1) 略待上称 신겁+어요→신거워요, 춤다+어요→춰워요
- (2) 過去形 가깝+았다→가까웠다, 굶다+았어요→고웠어요
- (3) その他 돕+아 주겠어요→도와 주겠어요, 눅+어 봤습니다→누워 봤습니다

c : 「뵈다/만나뵈다」は、「으」で始まる語尾や補助語幹が付くと「ㅂ」と「으」が落ち、「어」で始まる語尾が付くと「ㅂ」が落ちる。

- (1) 未来連体形 뵈+을→뵈
- (2) 仮定形 뵈+으면→뵈면
- (3) 連用形 뵈+어→뵈어

《注》 その他の主なㅂ変則用言 ; 무겁다, 가볍다, 쉽다, 어렵다, 아름답다,
간지럽다, 고맙다, 괴롭다, 까다롭다, 더럽다, 두렵다, 두껍다,
무덥다, 무섭다, 부끄럽다

主なㅂ正則用言 : 입다, 뽑다, 엮다, 집다, 줍다, 잡다

(5) **ㄷ変則** : 語幹が「ㄷ」で終わる動詞の一部がこれに属する。

: 母音で始まる語尾や補助語幹が付くと、「ㄷ」が「ㄹ」に変化する。

ㄷ+「으/아/어」→ㄹ+「으/아/어」

- ㄷ+으 → 듣(다)+으면→들으면, 듣(다)+으세요→들으세요
- ㄷ+아 → 깨닫(다)+았다→깨달았다
- ㄷ+어 → 묻(다)+어요→물어요 (尋ねる)

《注》 その他主なㄷ変則用言 ; 걷다, 긴다, 단다, 신다

主なㄷ正則用言 ; 묻다(埋める), 받다, 닫다, 얻다, 믿다, 굶다, 돌다, 뺀다

(6) **ㅅ変則** : 語幹が「ㅅ」で終わる用言の一部がこれに属する。

: 母音で始まる語尾や補助語幹が付くと語幹末の「ㅅ」が落ちる。

(a) ㅅ+「으」→ㅅ 이 없어진다

- (1) 動詞の過去連体形 낫(다)+은→나은, 짓(다)+은→지은
- (2) 仮定形 낫(다)+으면→나으면, 짓(다)+으면→지으면
- (3) 敬語形 낫(다)+으십니다→나으십니다, 짓(다)+으세요→지으세요
- (4) その他 낫(다)+을→나을, 짓(다)+을→지을

(b) ㅅ+「아/어」→ㅅ 이 없어진다

- (1) 略待上称 낫(다)+아요→나아요, 짓(다)+어요→지어요
- (2) 過去終止形 낫(다)+았다→나았다, 짓(다)+었다→지었다

【注】 나아, 지어가さらに縮約されて나, 저となることはない。

《注》 その他主な入変則の用言

긋다 (線を) 引く、붓다 (注ぐ・腫れる)、잇다 (継ぐ)

主な入正則の用言

벗다 (脱ぐ)、씻다 (洗う・拭う)、웃다 (笑う)

(7) **ㅎ 変則** : 語幹が「ㅎ」で終わる**形容詞**のうち「좋다」以外はすべてこれに属する。

(動詞はすべて規則活用)

(a) 「으」で始まる語尾や補助語幹が付くと、語幹末の「ㅎ」と語尾の先頭の「으」が落ちる。

ㅎ + 「으」 → 다 업서진다

(1) 形容詞の現在連体形 저렇 (다) + 은 → 저런, 노랗 (다) + 은 → 노란

(2) 仮定形 파랗 (다) + 으면 → 파라면, 이렇 (다) + 으면 → 이러면

(3) 敬語形 그렇 (다) + 으세요 → 그러세요

(4) その他 그렇 (다) + 을 → 그릴, 그렇 (다) + 은데 → 그런데

(b) 「아／어」で始まる語尾や補助語幹が付くと、語幹末の「ㅎ」とその直前の母音が落ち、「아／어」が「ㄱ」に変化する。

ㅎ + 「아／어」 → **ㄱ**

(1) 略待上称 그렇 (다) + 어요 → 그래요, 빨갱 (다) + 아요 → 빨개요

(2) 過去形 이렇 (다) + 었어요 → 이랬어요

ただし、 하얗 (다) + 아 → 하애, 뿌옇 (다) + 어 → 뿌예

《注》 その他主なㅎ変則用言: 까맣다, 노랗다, 어둡다, 커다랗다, 부엌다

(8) **어 変則** : 語幹が母音「어」で終わる用言のごく一部がこれに属する。

: 「어」で始まる語尾や補助語幹が付くと、「어」が落ち語幹末の「ㄱ」が「ㄱ」に変化する

ㄱ + 「어」 → **ㄱ**

이러 (다) + 어야 → 이래야 (こうして初めて)

어쩌 (다) + 어서 → 어째서 (どうして)

그러 (다) + 었습니다 → 그랬습니다 (そうしました、そう言いました)

(9) **우 変則** : 動詞「푸다 (汲む、飯をよそう)」のみがこれに属する。

: 「어」で始まる語尾が付くと、「ㅏ」と「ㅓ」が落ちる。

푸 (다) + 어서 → 퍼서, 푸 (다) + 었다 → 뒀다

(10) **하 変則** 「하다」及び「~하다」の形式を持つすべての用言がこれに属する

: 「아」で始まる語尾が付くと、「아」が「여」に変化する。「하여」が縮約されると「해」に変化する。

하 (다) + 어서 → 하여서 → 해서

하 (다) + 았다 → 하였다 → 했다

(11) **ㄷ 変則** (ㄷ語幹)

: 語幹が「ㄷ」で終わる用言はすべてこれに属する。

: 「ㄴ・ㄹ・ㅁ・ㅂ」 「パッチムのㄴで始まる語尾」「中称の終結語尾오」

「美化補助語幹「-읍-」が付くと語幹末の「ㄴ」が落ちる。

形容詞の現在連体形、動詞の過去連体形 멀(다)+ㄴ→먼, 흔들(다)+ㄴ→흔든

動詞の現在連体形、接続語尾 흔들(다)+는→흔드는, 멀(다)+니까→머니까

上称形 멀(다)+ㅂ니다→됩니다, 흔들(다)+ㅂ니까? →흔들니까?

敬語体 멀(다)+시지요→머시지요, 흔들(다)+세요→흔드세요

中称の終結語尾 멀(다)+오→머오, 흔들(다)+오→흔드오

連用形: 「~아 / 어 보다(~して見る)、~아 / 어 주세요(~してください)、~아 / 어 주겠습니다(~してあげましょう)、~아 / 어 버리다(~してしまう)、~아 / 어 보이다(~くみえる)など後ろに他の動詞を伴う形を連用形という。(用言の変則活用に注意)

陽語幹 語幹+아 받(다) →받아, 놀(다) →놀아, 앉(다) →앉아

陰語幹 語幹+어 먹(다) →먹어, 울(다) →울어, 신(다) →신어

ㅎ変則 하 +여 →하여/해 공부하(다) →공부하여/공부해

《注》語幹が아 / 어で終わる用言の連用形は必ず縮約されて아 / 어が落ちる。

가+아→가, 만나+아→만나, 바쁘+아→바빠,

서+어→서, 크+어→커, 쓰+어→써

縮約形: 母音語幹では連用形が縮約形を持つ。

ㄱ+아 →과 ; 오아 →와 보아 →봐

와は必ず縮約する

ㄷ+어 →더 ; 배우어 →배워 주어 →줘

その他は両方使っ

ㄴ+어 →내 ; 되어 →돼 꺾어 →꺾

ても良い。

ㄹ+어 →려 ; 다니어 →다녀 이기어→이겨

【参考】 1. 用言の過去形は連用形の 아/어/여 の下に “ㅁ” を付けた形である。

가다→갔다, 먹다→먹었다, 춥다→추웠다, 있다→있었다, 하다→하었다

2. 略待上称(うちとけた丁寧な言い方) “해요体” は連用形に “요” を付けた形である。

오다→와요, 가다→가요, 먹다→먹어요, 덥다→더워요, 없다→없어요

連体形: 名詞を修飾する形を連体形という。

(1) - 1 **現在連体形: 形容詞と指定詞**

母音語幹+ㄴ: 크(다)+ㄴ→큰, 희(다)+ㄴ→흰, 친구이(다)+ㄴ→친구인

ㄷ 語幹+ㄴ: 멀(다)+ㄴ→먼, 길(다)+ㄴ→긴 ㄹは脱落

子音語幹+은: 높(다)+은 →높은, 작(다)+은 →작은

【注】 1. 指定詞の語幹は母音体言の後でも省略しない。

시인이자(詩人だ) →시인입니다(詩人です) →시인인~(詩人の~)

선수(이)다(選手だ) →선생니다(選手です) →선수인~(選手の~)

2. ㄷ語幹ではㄷが脱落する。

어질다(善良だ) →어진 사람

등글다 (円い) → 둥근 얼굴

(1) - 2 **現在連体形：動詞と存在詞**

母音語幹+는 : 가(다)+는 →가는, 보(다)+는 →보는, 마시(다)+는 →마시는
ㄷ 語幹+는 : 알(다)+는 →아는, 걸(다)+는 →거는, 놀(다)+는 →노는 **ㄷは脱落**
子音語幹+는 : 먹(다)+는 →먹는, 낳(다)+는 →낳는, 단(다)+는 →닫는 **鼻音化**

【注】 1. ㄷ 語幹ではㄷが脱落する。

2. 子音語幹では、語幹末子音が鼻音化する。

3. 母音語幹とㄷ語幹のうちで現在終止形が同形になるものは、現在連体形も同形になる。

가다(行く)／갈다(耕す)→간다, 가는(行く～／耕す～)

나다(出る)／날다(飛ぶ)→난다, 나는(出る～／飛ぶ～)

사다(買う)／살다(住む)→산다, 사는(買う～／住む～)

(2) - 1 **過去連体形：動詞**

母音語幹+ㄴ 오(다)→온, 말하(다)→말한
單純過去 ㄷ 語幹+ㄴ 팔(다)→판, 만들(다)→만든 **ㄷ 脱落**
子音語幹+은 믿(다)→믿은, 죽(다)→죽은
回想過去 語幹+던 말하(다)→말하던, 믿(다)→믿던

【注】：指定詞・形容詞の現在連体形と動詞の單純過去連体形とは同形になる。訳す時に要注意。

過去回想は「～していた～」と訳す。

큰 모자를 쓴 남자 大きい(な)帽子を被った男

누나가 만든 단 과자 姉が作った甘い菓子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 短いスカートをはいた娘さん

내가 다니던 학교 私が通っていた学校

(2) - 2 **過去連体形：形容詞・存在詞・指定詞**

この三つは過去連体形は、語幹に「-던」をつける。

크(다)→크던, 있(다)→있던, 사장이(다)→사장이던

【注】：形容詞・存在詞・指定詞の過去連体形は、現在とのつながりが希薄だと感じられるときは「-**왔던／있던**」という形(過去回想ともいう)をとることもある。

아름답(다)→아름다**왔던** 내 고향

없(다)→없**었던**, 아니(다)→아니**었던**

(3) **未来連体形**：未来連体形はすべての用言にあり、まだ実現していない動作や状態を表したり種々の慣用句を作る。

母音語幹+ㄹ ; 만나(다)+ㄹ →만날, 크(다)+ㄹ →클, 아니(다)+ㄹ →아닐

ㄷ 語幹 +ㄹ ; 울(다)+ㄹ →울, 등글(다)+ㄹ →등글, 만들(다)+ㄹ →만들 **ㄷ脱落**

子音語幹+을 ; 먹(다)+을 →먹을, 높(다)+을 →높을, 앉(다)+을 →앉을

【注】：未来連体形に続く体言が平音「ㄱ、ㄷ、ㅂ、ㅅ、ㅈ」で始まっているときは、それらは必ず**濃音**で発音される。

떠날 길(旅発つ道)→떠날 **길**, 받을 돈(受取るべきお金)→받을 **돈**,

앉을 자리(座るべき席)→앉을 **자리**

【注】動詞の未来連体形は「～すべき」「～するはずの～」のような意味になる。

(4) : 連体形の作り方を表にまとめると、次のようになる。

	現在連体形	過去連体形	未来連体形	回想連体形
動詞	는	(으)ㄴ	(으)ㄹ	던
存在詞		던 왔 / 었던		
形容詞 指定詞	(으)ㄴ			

下称 聞き手に対する丁寧な気持ちを一切含まない文末の形式を下称といい、文章の地の部分や子供に対して用いられる。

(1) 平叙文の下称

《参考》上称形

形容詞・指定詞 -다 크다→크다, 멀다→멀다, 알다→알다

큼니다, 멀나다, 알습니다

存在詞 子音語幹 -다 있다→있다, 없다→없다
母音語幹 -ㄴ다 계시다→계신다

있습시다, 없습시다
계십시다

動詞・ 母音語幹 -ㄴ다 가다→간다, 내리다→내린다
ㄹ語幹 -ㄴ다 알다→안다, 올다→운다 (ㄹ脱落)
子音語幹 -는다 먹다→먹는다, 돕다→돕는다(鼻音化)

갑시다, 내립시다
압시다, 읍시다
먹습시다, 돕습시다

時制補助語幹 -다 받다→받았다, 입다→입겠다

받았습시다, 입겠습시다

(2) 疑問文の下称

動詞・存在詞

母音語幹 -느냐/니? ; 오느냐?, 일어나니?
ㄹ語幹 -느냐/니? ; 아느냐?, 노니? (ㄹ脱落)
子音語幹 -느냐/니? ; 먹느냐?, 있니? (鼻音化)

읍니까?, 일어납니까?
압니까?, 뇽니까?
먹습니까?, 있습니까?

形容詞・指定詞

母音語幹 -냐/니? ; 크냐?, 아니니?
ㄹ語幹 -냐/니? ; 머냐?, 기니? (ㄹ脱落)
子音語幹 -으냐/으니? ; 추우냐?, 짧으니?

큼니까?, 아닙니까?
덜니까?, 깎니까?
쭙습니까?, 짧습니까?

時制補助語幹 - **냐/니?** ; 먹었냐?, 오겠니?

먹었습니까?, 오겠습니까?

(3) 命令の下称 「～しろ」

陽語幹 -아라 ; 보다→보아라, 잡다→잡아라

보십시오, 잡으십시오

陰語幹 -어라 ; 서다→서라, 듣다→들어라, 만들다→만들어라

서십시오, 들으십시오,
만드십시오

《注》下称命令には不規則な形を取るものがある。

a. 하變則 ~하다+아라→하여라→해라

~하십시오

b. 거라變則 語幹+거라 ; 가다→가거라, 있다→있거라,
자다→자거라

c. 너라變則 語幹+너라 ; 오다 →오너라

ただし b, cについては規則どおりに가라, 있어라, 와라という人もいる。

(4) 禁止(命令)の下称 「~するな」

動詞語幹+지 말아라/마라

오다 →오지 말아라/마라 웃다 →웃지 말아라/마라

오지 마십시오,
웃지 마십시오

なお반말は語幹+지 마 : 가지 마, 웃지 마

(5) 勧誘の下称 「~しよう」

動詞語幹+자

가다 →가자, 먹다 →먹자, 불다 →불자

갑시다/가십시오
먹읍시다/머그십시오
불시다/부십시오

間接話法(引用文) 言葉や考えを間接的に伝える形式。

(1) 平叙形引用文 : 平叙文を引用形にするには、

指定詞の場合は 語幹+(이)라고/아니라고

その他の場合は 平叙文下称+고

(말) 하다 (言う)、그러다 (そう言う)、생각하다 (思う)、믿다 (信ずる)、듣다 (聞く)
などが伝える動詞として使われる。

例文 : 指定詞 ; 동수 어머니는 잡지 편집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어요.

形容詞 ; 일본에는 지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存在詞 ; 내일이라면 돈이 있다고 전해 주세요.

動詞 ; 이 토끼는 어쩐지 당근을 아 먹는다고 합니다.

(2) 疑問形引用文

動詞・存在詞

보기

母音語幹 +느냐고 ; 오다 →오느냐고

버스를 어디서 타느냐고 물었다.

ㄹ 語幹 +느냐고 ; 알다 →아느냐고

그 일을 아느냐고 물어 봤다. ㄹ 脱落

子音語幹 +느냐고 ; 있다 →있느냐고

돈이 있느냐고

形容詞・指定詞

母音語幹 +냐고 ; 아니다 →아니냐고

누가 예쁘냐고 하니까 난처했다.

ㄹ 語幹 +냐고 ; 길다 →기냐고

ㄹ 脱落

子音語幹 +으느냐고 ; 짧다 →짧으냐고

時制補助語幹 +느냐고 ; 먹었다 →머졌느냐고

꽃병을 누가 켜느냐고 어머니가 야단
치냈다.

(3) 命令の引用文

	常体	敬体	
母音語幹	+라고	시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
ㄷ 語幹	+라고	시라고	마시기 전에 잘 혼드시라고 전해 주세요
子音語幹	+으라고	으시라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해.

【注】命令の引用文は命令の下称と異なる形をとる。

【命令の下称形】

陽語幹+아라

陰語幹+어라

하語幹+여라

【命令の引用形】

母音語幹+라고

子音語幹+으라고

ㄷ 語幹+라고

보다 →보아라／보라고

먹다 →먹어라／먹으라고

하다 →하여라／하라고

놀다 →놀아라／놀라고

(4) 依頼の引用文

주다 は「くれる」と「やる」の二つの意味を持つ。主語が「私」のときは「やる」になり、
間接目的語が「私」のときは「くれる」になる。

나는 동생에게 용돈을 주었다.

私は弟(妹)にお小遣いを上げた(やった)

형님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兄は私に本をくれた

しかし依頼の引用文では区別が生じる。

受け手が話し手の場合 달라고 (くれと)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다. (私に)教えてくれと言った

受け手が第三者の場合 주라고 (やれと) (친구에게) 가르쳐 주라고 했다. (友人に)教えてやれと言
った

《参考》動詞の連用形に付いて同形で「～してやる」「～してくれる」となる。

나는 동생에게 가방을 사 주었다. 私は弟にカバンを買ってあげた

형이 나에게 가방을 사 주었다. 兄が私にカバンを買ってくれた

(5) 禁止(の命令)の引用文

動詞語幹+지 말라고 ; 그가 오지 말라고 했다. 가지 말라고 말해야 돼요.

(6) 勧誘の引用文

動詞語幹+자고 ; 차나 한잔 마시자고 그러세요. 같이 가자고 약속했는데

(7) 引用文の連体形

引用文連体形は引用形語尾のあとに하다の連体形하는を続けて体言を修飾する形である。

～고 하～の部分が省略されることが多い。

돈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お金はいくらも残っていないという話です。

이 광주라(고 하)는 작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李光洙という作家を研究しています。

뭇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何をどのようにするのかという問題があります。

아버지한테서 빨리 고향에 돌아오라(고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父から早く故郷に帰って来いという手紙が来ました。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その場で結論を出そうという人のほうが多かったです。

引用文の縮約形

引用文の～하다体は縮約して用いることが多い。一般的に「～고 하～」

の部分が省略される。

(1) 平叙文の引用文縮約形

動詞・形容詞・存在詞の場合

～다고 합니다 →～답니다 ; 가다 →간답니다, 좋다 →좋답니다
～다고 해요 →～대요 ; 먹다 →먹는대요, 있다 →있대요
～다고 해 →～대 ; 살다 →산대, 했다 →했대
～다고 한다 →～단다 ; 웃다 →웃는단다, 싫다 →싫단다

指定詞の場合

～라고 합니다 →～랍니다 ; 집이다 →집이랍니다
～라고 해요 →～래요 ; 회사다 →회사래요
～라고 해 →～래 ; 우산이다 →우산이래
～라고 한다 →～란다 ; 부자다 →부자란다

(2) 疑問の引用文縮約形

～냐고 합니다 →～납니다 ; 가다 →가느냐입니다, 좋다 →좋으느냐입니다
～냐고 해요 →～내요 ; 먹다 →먹느냐요, 예쁘다 →예쁘느냐요
～냐고 해 →～내 ; 살다 →사느냐, 했다 →했느냐
～냐고 한다 →～난다 ; 찾다 →찾느냐, 길다 →기느냐

(3) 勸誘の引用文縮約形

～자고 합니다 →～잡니다 ; 이기다 →이기잡니다, 듣다 →듣잡니다
～자고 해요 →～재요 ; 팔다 →팔재요, 입다 →입재요
～자고 해 →～재 ; 쓰다 →쓰재, 참다 →참재
～자고 한다 →～잔다 ; 보내다 →보내잔다, 씻다 →씻잔다

(4) 命令の引用文縮約形

～라고 합니다 →～랍니다 ; 오다 →오랍니다, 먹다 →먹으랍니다
～라고 해요 →～래요 ; 서다 →서래요, 돕다 →도우래요
～라고 해 →～래 ; 기다리다 →기다리래, 만들다 →만들래
～라고 한다 →～란다 ; 앉다 →앉으란다, 걷다 →걸으란다

→